

장흥군, 2년연속 상수도 운영 우수기관

환경부 실시 일반수도사업 운영·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

상수도요금 현실화·유수율 80% 달성 등서 좋은 평가 받아

장흥군이 환경부가 실시한 '2017년 일반수도사업 운영·관리'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장흥군은 환경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기관 인증서와 포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게 됐다.

장흥군은 모두 28개 평가 항목

중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제고, 점수시설 운영 관리 및 수질기준 준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24시간 상수도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, 상수도 노후관로개량에 따른 유수율 80% 달성 등의 성과도 이번 평기에 반영

됐다. 장흥군은 지역민의 물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, 2020년까지 총 611억원을 들여 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특히, 전남 서남부권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장흥댐 물을 읍면 단위 산간지역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차적 상수도사업을 추

진하고 있다.

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오수관로 설치를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.

군은 오는 2020년까지 하수도사업에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입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70%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군 관계자는 "앞으로 지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,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수도 행정을 이어가겠다"고 밝혔다.

장흥=김종민 기자



무안 대표 우수기업 '(주)에프엔디'

청계2농공단지 내 제2공장 준공

"내년 매출 100억 목표"

올해 초 전남도 및 무안군과 투자 협약(MOU)을 체결한 지역 우수기업인 '(주)에프엔디(대표 흥민석)'가 무안군 청계2농공단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고 지난 6일 준공식을 가졌다.

준공식에는 '(주)에프엔디' 임직원을 비롯해 박준수 무안군수, 권한대행,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애프엔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.

(주)에프엔디는 관내 농산물을 70% 이상 원료로 사용하여 생식 및 동물건조제품 등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'(주)이룸, 삼양사, CI(주), 대상(주)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지역 대표 우수기업이다.

무안=이기성 기자



여수시 주최 '석유화학 안전관리 세미나' 개최

최근 포항지진 등으로 여수산단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내외의 석유화학시설의 안전관리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여수에서 열렸다.

여수시에 따르면 '석유화학 공정 및 전기 선진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'가 지난 6일 오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여수산단 공장장·종사자, 시민 등 180

여수=송기홍 기자

진도군 급수시설 한파대책 종합상황실 운영

K-water 진도수도관리단과 내년 3월 13일까지



진도군과 K-water 진도수도관리단은 겨울철 한파 대비와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 3월 13일까지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K-water 진도수도관리단은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 정비, 사전 실시한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결과 보온이 필요한 관로나 빌

브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고 동파방지 예방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중이다.

특히 계량기 동파방지지역과 독거노인 수용기지 등 동파방지对策을 설치해 주기로 했으며, 주민들께는 현웃이나 인조 솜 등을 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가득 채워 미리 보온조치하고 노출된 관은 보온자재 등으로 단단히 감싸서 물과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.

K-water 진도수도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동파방지对策 무료 설치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는 물론,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.

또한 K-water 진도수도관리단장 박소중은 진도군 상수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, 군민에게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.

진도=조상웅 기자

장흥군 대덕읍, 황금보다 비싼 황칠나무 길 만든다

황칠나무 현수운동 전개

장흥군 천관산 황칠사업단(단장 임연진)과 대덕읍(읍장 이재천)은 지난 6일 대덕 황칠나무 지역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협약체결하고 황칠나무 현수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.

현수운동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읍민과 향우, 기관사회단체

를 대상으로 진행한다.

천관산 황칠사업단은 1구좌 1만원을 지정계좌(농협 351-0981-1167-13)를 통해 현수 받을 예정이다.

현수 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황칠나무는 대덕읍을 따라 내년 식목일에 식재하고, 현수목에는 현수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한다.

장흥 대덕읍은 신라시대 해상왕장보고 활동지역으로 당시 교역물

품 중에서 황칠이 황금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됐다고 전해진다.

대덕은 황칠의 약용효과가 타월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되고 있다.

는 점에 착안하여 황칠나무를 지역 특화 경제수종으로 선정했다.

지난 11월 2일에는 천관산 황칠사업단을 결성하고 황칠나무 소득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.

장흥=김종민 기자



화순

건강한 먹거리의 시작,
에서 힐링을 맛보세요!